

李 錫 周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環境變化와 対応力의 強化

希望찬 己巳年 새해에 우리 經濟를 이끌어 온 電子電氣業界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88年 우리 經濟는 12.1%의 高度成長과 140億달러의 國際收支黑字를 기록한바 있으며 지금 우리는 작년에 이룩한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蘇聯·東歐圈·中國 등과의 소위 北方通商門戶의 개방, 中東休戰에 따른 이들 國家와 盧泰愚 大統領의 東南亞 巡訪에 따른 아세안 諸國과의 經濟協力 강화 기대 등 유리한 經濟環境을 맞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원고와 保護貿易 趨勢 및 市場開放壓力의 강화, 賃金과 原資材價格 상승 등 불리한 국면이 혼합되어 복잡한 内外經濟 環境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조를 빚고 있는 이러한 經濟與件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後發開途國의 추일을 막고 2000年代에 1인당 GNP 1만달러를 이루고 先進社會로 跳躍하는 한편 민족통일의 大業을 완성하느냐 아니면 과거 브라질·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諸國과 이집트와 같이 中進國의 門前에서 정체하여 다시 후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는 前轍을 밟느냐 여부는 지금 우리가 오늘의 内外經濟環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냉엄한 오늘의 현실을 直視하고

급속한 國際化의 물결과 經營壓迫을 가져오는 제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앞서 先決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企業人이 안목을 넓히고 부단히 工夫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격변하는 内外經濟與件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技術革新과 새로운 商品開發, 財務構造 개선과 生産性 向上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企業은 資本에 앞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아래 원만한 勞使關係와 國際感覺이 있는 유능한 人材 확보, 教育訓練, 人事管理의 합리성 등이 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민족사적 一大 轉換期에 처해 있으며 개인이나 企業이나 社會全體가 영광스러운 90年代를 맞이 위해서는 급속히 전개되는 内外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추도록 신속히 체제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強調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도 우리 經濟의 成長, 發展을 先導해 온 貴電子電氣業界에 榮光의 한 해가 되도록 계속 繁昌하시고 貴會 任職員의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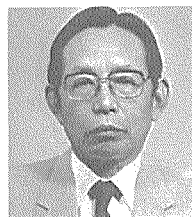
希望에 찬 己巳年을 맞이하여

貴社의 日益繁昌을 祈願합니다.

— 韓國電子工業振興會 任職員一同 —

己巳年을 맞이하여 바라고 싶은 것

朴 檉 基 / 高麗大 電子電算工學科長 教授 · 工博



己(뱀)은 지능계수가 높은 동물로 평가되고 있다. 본인이 몸 담고 있는 高麗大學校 電子·電算工學科 신년 하례장에서도 올 기사년에는 특히 뱀과 같이 지혜롭게 즉, 다시말해서 슬기롭게 살아보자, 또 때에 따라서는 도마뱀이 그 꼬리부분을 과감하게 절단해 버리는 것과 같이 지난해에 있었던 시행착오라든가 유쾌하지 못했던 일들은 과감하게 척결하고 계획을 새롭게 검토하여 새로운 기분과 기력으로 일에 임하므로써 實質의이고 효율적인 成就를 이루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말을 하였다.

본인의 나이 어느덧 65세를 넘어 微軀에 정년퇴임을 하게끔 된 現時点에서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볼 때 항상,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바르게 또 보다 알기 쉽게 교수를 해야겠다는 심지를 가지고 교편을 잡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실용성있는 研究, 산업에 직접 기여하

는 研究를 해야겠다는 一念으로 살아 왔었으나 後者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自責感만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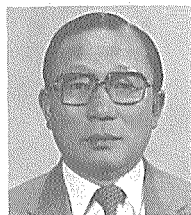
「電子振興」誌의 전신인 「電子工業」誌와 나의 첫 번째 만남은 1979年 9月이었으며 그때 寄稿한 「컬러TV의 早期放映과 韓國의 電子工業」은 당시로서는 약간의 용기를 요하였던 것이나 그후 컬러TV의 방영이 가져다 준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성장발전 과정은 실로 눈부신 바 있어 나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 전자산업체는 장족의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반하여 전자공학계의 실험연구장비는 신구대체를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로 상대방을 도울 길을 찾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새해를 맞으면서

金 洪 燦 / 廣林電子工業(株) 社長 · 本會 理事



우리에게 희망과 영광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었던 무진년을 보내고 희망에 찬 기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자공업인 가정에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국가적으로는 세계 160개국에 참가한 사상최대의 서울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루었고 경제적으로는 12.1%의 고도성장과 13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자산업 또한 수출이 '87년 10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말 현재 124억달러를 기록한 데 힘입어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선도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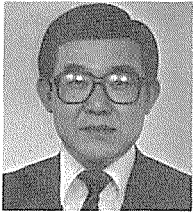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이룩하는데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며 묵묵히 뒤에서 땀흘린 전자공업인 여러분의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9년 기사년의 전자산업 전망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절상, 시장개방 압력, 무역마찰, 노사문제와 임금상승 등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많은 현실적인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기술혁신, 새로운 상품개발, 원만한 노사관계의 유지 등 경영합리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사년 새해에도 우리 전자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세계 무역시장에서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情報化 時代의 實現

朴 成 圭 / 大宇通信(株) 社長 · 本會 理事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과연 韓國人이 騎馬民族의 후예답다는 생각이 든다. 성공적으로 치룬 서울올림픽과 급격한 政治的, 社会的인 발전은 차치하고라도 經濟的인 성과, 특히 電子通信産業의 발전은 실로 눈부신 것이라 하겠다. 이미 그 分野에서는 大國化된 纖維, 建設, 自動車産業에 이어 이제는 最尖端産業인 우리 業界도 서서히 世界的으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있는 듯하다.

己巳年을 맞이하여 大宇通信은 올해를 飛躍的인 發展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삼아 生産, 營業, 研究開發 등 각부문에서 그 능력을 提高하는데 全力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올해 第1의 목표로 製品의 高附加價值化와 品目の 다양화를 추구할 것이다.

輸出分野에서는 현재까지 개인용 컴퓨터의 美州地域 輸出依存에서 탈피하여 局設, 私設交換機와 팩시밀리 키폰 등 附加價值가 높은 製品의 輸出을 추진함과 동시

에 輸出市場도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다변화하여 通商摩擦에 대비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社會에서 급증하고 있는 電子通信分野의 다양한 製品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內需販賣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海外에서 그 技術力을 인정받은 大宇通信이 보다 質이 우수한 제품을 보다 經濟的인 가격으로 國內에 공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치열한 경쟁에서 優位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 社會에서 情報化時代를 실현하는데 공헌하는 책임있는 企業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다.

1989年度의 企業環境은 지난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지만, 大宇通信, 더 나아가 우리 業界의 모든 분들이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여 올해에도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으리라 確信한다.

'89年을 맞는 우리의 각오



安 秉 暉 / 海태電子(株) 社長

다사다난했던 무진년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에 찬 기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든 전자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반복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지난 한해는 우리가 Olympic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국력을 세계만방에 떨친 뜻깊은 한해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더 한층 그 발전의 기틀을 공고히 다진 뜻깊고 보람찬 한해였다. 반면에 대외교역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의 강화와 대외 원화가치의 절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한해였다.

이러한 대외교역 여건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특히 우리 전자산업에는 미주지역 및 EC 지역의 수출 감소, 대외 원화가치의 계속적 절상에 의한 수출채산성의 악화, 노사문제의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원자재비

의 증가 요인 등 결코 쉽지 않은 장벽들이 가로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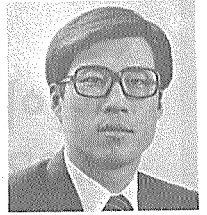
우선적으로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수출 채산성의 강화이다. 덤핑 시비가 제기될 정도로 가격 차별화에만 의존하던 수출방식을 지양하고 품질, 기능, 디자인 등 비가격 차별화에 의한 수출증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주요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 산업전반에 걸쳐 자동화 투자 증대를 꾀하여야 할 것이고,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통하여 기술우위의 입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전자산업인 모두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입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행동방식으로써 힘을 모아 전진하자.

尖端産業 育成을 위한 해

鄭 夢 憲 / 現代電子産業(株)社長 · 本會 非常勤 副會長



産業을 분류하는 方法은 많이 있다. 요즘은 그 동안 흔히 쓰던 1次, 2次, 3次 産業 또는 重工業, 輕工業 대신 成長産業, 衰退産業으로 분류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분류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달리 붙이는 명칭이나, 그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러한 분류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타당성과 효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成長産業, 衰退産業의 2分法은 한가지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成長과 衰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産業도 어느 시대에는 成長産業이었다가 後에 시대가 변함에 따라 衰退하거나 成長과 衰退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成長産業은 成功産業이라는 등식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成長 = 成功이고, 衰退 = 失敗라는 등식이 성립하는지는 몰라도 현실은 그와 반대내지는 그러한 등식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요즘 우리에게도 익숙한 Venture capital의 平均 成功率이 5%에도 못미친다는 美國의 統計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成長産業에서의 낮은 성공률은 成長 = 成功이라는 일반의 믿음을 깨뜨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成長産業은 成功의 확률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경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美國의 실리콘 벨리에는 일년에도 수천의 企業이 새로 생기고, 그 만큼의 企業이 없어지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극심한 경쟁 때문이라 생각된다.

흔히들 電子産業을 '90年代의 우리 경제를 끌어 갈 成長産業이요, 科學技術發展을 선도할 尖端産業이라 하는데 電子産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슴 뿌듯한 말이나, 그 裏面에 숨은 뜻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己巳年 새해를 맞아 成長 = 成功의 등식을 만드는 데 電子人 모두가 努力을 傾注해 보았으면 한다.

